

자존감과 탈권위 그리고 자치적 삶의 행복

최종덕(상지대 교수, 생물철학 저자)

11월 3일

소유

인간은 인간으로의 진화과정에서 존재와 인식과 행위의 일체가 깨어지고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명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간의 인식과 행위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었다. 문명은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물질의 풍요로움은 끝없는 소유의 유산이었다. 그래서 나의 소유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나의 소유는 필연적으로 너의 결핍을 동반하게 마련이었다. 소유의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결핍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강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문명사회의 지배논리로 되었다.

인간 소유욕구의 특징은 그 욕구가 충족될지라도 여전히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존재와 인식과 행위가 통합된 동물의 소유는 존재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소유의 욕구도 그치고 만다. 이 점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특징이다. 동물은 존재의 소유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소유의 행위도 그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유를 지향한다. 존재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유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자.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땅의 사자나 혹은 물의 상어도 배가 채워지면 먹이사냥을 그친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오로지 소유를 위해서 계속 소유욕망을 실현코자 한다.

인간의 소유욕망은 더 이상 개체의 존속과 종의 증식을 위한 인식적 도구가 아니라, 문명사회와 함께 주어진 인간의 가장 큰 존재특징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소유욕이 오히려 인간상실과 집단절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환경위기, 인간소외, 자원고갈, 국제분쟁 등에서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뽐내고 남 업신여기는 등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간사의 분화된 존재는 모두 소유의 질곡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쯤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

분노

욕망은 어떤 때는 충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욕망의 특성을 충동적 욕망 혹은 중독성 욕망이라고 표현한다. 절제란 그런 욕망의 마음을 행동으로 쉽게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의 습관이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절제의 뜻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먹기를 자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친구는 대화할 때 욕설이 습관처럼 배어서 욕이 아니면 대화를 못할 지경에 사람도 있다. 음식을 먹으려는 욕심은 나의 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 욕을 하는 습관은 나의 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 포르노 동영상을 보려는 욕구는 나의 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 더 진한 화장을 하려는 욕구는 나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마음인 것이다. 나의 배, 나의 혀, 나의 눈, 나의 얼굴이 요구하는 욕구는 채워질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한다. 절제된 마음에서 비로소 행동 습관이 멈춰진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무절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즉 자기감정을 다스리는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낀다. 느끼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분노에 대한 절제는 매우 중요하다. 분노는 일종의 심리적 고통으로서 몸의 고통이 있으면 이를 진통제 등으로 치료해야 하듯이 심리적 고통인 분노도 치료의 대상이다. 분노를 치료하는 방법은 분노를 일으킨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원인을 피해가기는 실제로 쉽지 않다. 일상적으로 술먹고 들어와 가족들을 못살게 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일 년 내내 나를 무시하는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분노, 집에 가는 밤길에 내 돈을 뺏어간 깡패들에게 대한 분노, 나를 왕따시키는 학우들에 대한 분노 등등, 이 모든 분노의 원인들을 헤아릴 수도 없고 적절히 대처할 수도 없다. 분노를 일으키는 나 자신만 손해 본다. 그래서 분노를 절제하는 나 자신의 연습이 필요하다.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지나가는 나와 모르는 자전거에 우연히 부딪쳤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하고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화를 풀어야 할까? 이처럼 의도가 없는 행동에 의해 피해를 보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결국 내 마음만 상처받고 풀리지 않은 채 나의 화만 더 깊어지는 것이다. 결국 누가 손해일까? 어느 누구도 나의 화, 나의 짜증냄을 풀어줄 수 없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조차도 겉으로만 위안이 될 뿐 나의 화낸 나의 짜증냄을 풀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절제의 마음이 필요하다.

모방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과정은 자기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판단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어른이 젖먹이 아이를 키우듯 별과 상이라는 제도를 통한 일방적인 훈육의 윤리학이라면,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으로 세상을 헤아리는 능력은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아이들은 거울을 통해 어른을 바라보고 따라하면서 성장한다. 이미 교육은 학교 입학 이전부터 거울에 반사된 어른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고슴도치인데 토끼처럼 행동하라는 어른들의 강요된 윤리 책이라면 그런 윤리 책이 만 권이 되든, 우리들은 강요된 토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비춰진 고슴도치를 자동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안다. 동물원에서 어느 정도 훈련된 침팬지 정도라면 모를까, 동물은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자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울을 향해 흥분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거울에 나타난 모습이 나임을 안다는 것은 인간다움의 기본이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타인에 대한 의식은 윤리학의 출발이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이다. 쉽게 말하자면 첫째 나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한다. 둘째 나는 남을 따라하면서 내가 성장한다. 즉 나는 남을 모방하면서 나의 자기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다. 그만큼 남을 모방하는 행위는 아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아이는 어른을 모방한다. 우리 모두는 타인을 모방하면서 타인과 함께 하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특히 우리 청소년은 어린이와 달리 또래와 어울리기를 시작한다. 또래 어울림은 이제 부모의 그늘아래서 벗어나서 스스로 정체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성장단계이다. 또래집단의 특징은 내가 또래들의 친구들을 모방하면서 동시에 남의 모방을 서로 받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또래 모임의 출발은 나도 어엿하게 남의 거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데 있다. 나는 이제 남의 거울이 되어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자각하고 그에 따라 나를 잘 가꾸어간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남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따라하게 되는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나의 사회화 과정이며 나의 나다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은 시행착오를 포함한다. 사회적 거울을 통해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아를 잘 닦는 시절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울 자체를 부정하고 거울보기를 거부한다. 거울보기를 거부하는 시기에,

부모가 자기를 남과 비교하면 가장 싫고 가장 힘들어진다. 어찌보면 거울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다. 거울을 통해 자기가 남에게 비교당하는 그런 모습이 싫기 때문에 거울도 싫어진 것이다. 또래와의 시간은 이렇게 거울과 함께 하지만 어떤 때는 거울이 싫어지기도 하는 그런 기간이다. 즉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혼자서 만들어가는 나만의 자아를 추구한다. 모방을 통한 사회적 화해를 배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만의 성곽을 쌓는 개성을 만들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조절과 타협을 배우며 나아가 주제와 개성을 키워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개성을 만들어가는 시간은 창의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화해를 만들어가는 시간은 도덕을 위하여 정말 중요하다. 사회적 자아와 창의적 자아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다. 모방하지만 나의 미래를 구축하는 현재가 바로 나의 미래이다.

권력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구성원들 사이의 균형적인 권력관계이다. 일인 왕권 중심의 사회는 인류의 역사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없어졌다. 현대 인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 에번스 프리처드의 저서 <누에르>(The Nuer, 번역서)는 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에 정착했던 누에르 족의 인간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20만 명 이상의 인구였던 누에르 사회는 일인 체제의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 그 어느 국가보다 오래 유지되어 왔다. (이차대전 이후 급격히 누에르 종족이 줄었다. 소를 키우는 종족이었는데 자동차의 유입으로 삶의 많은 부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누에르 족의 통치방식은 일인 독점적 중앙권력이 아닌 분산형 수평권력 구조였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 인류사에 걸쳐 특히 문자 시대 이후, 인간본성을 묻는 질문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동서양 할 것 없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형성되었다. 철학은 수평적 지식체계를 탐구한다. 이를 어렵게 말해서 '보편적 지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종교는 '보편적 사랑'이라는 인류원칙을 추구한다. 예술 또한 '보편적 표현'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갈구한다. 철학과 종교와 예술은 구상에서 추상으로 전이한 인류의 경계이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류의 추상 형질들이다. 이렇듯 인간사회의 권력 구조 역시 인간의 경계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인간사회의 권력구조가 침팬지 등의 다른 동물사회의 권력구조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인간사회의 권력구조 역시 동물적 권력이 아닌 '보편적 권력'의 구조를 내재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보편적 권력의 구체적인 양상은 자유의 이념이 아닌 수평의 이념 위에 축조된 인간관계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유도된다. 텔레비전 <동물의 왕국> 류에서 침팬지나 사자 혹은 개미의 생태계를 전환적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다면, 꽤나 사회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들 동물사회의 권력구조는 냉혹한 <이기적 자유>라는 행동원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얼른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중심권력>보다 <평등권력>이라는 좀 더 인간적인 원칙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다.

틀에 박힌 윤리 교과서에서 성선설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맹자가 거론되고, 그중에서도 측은지심을 설명하는 부분이 사례로 등장한다. 측은지심이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는 남의 아픔과 절실함을 서로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마음이며, 바로 그 마음이 인간 본성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 느낌과 행동은 숨길 수 없으며 체면이나 남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맹자는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양심의 이야기를 좋은 덕담이나 품나는 철학이론 정도로 인식할 뿐, 정말 자신의 본성에 결부시켜 자신을 둘러보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보노보	침팬지
감수성 풍부, 생동감 겁이 많음	성질이 거칠고 급함
머리털 세우는 경우 거의 없다	머리털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잦다
싸움이 별로 없다	자주 격하게 싸운다
<아>, <에> 모음 사용	<우>, <오> 사용
풍부한 소리	상대적으로 빈약
상대방을 부르는 손짓과 소리 사용	상대를 부르는 행동이 없음
성행위는 인간과 비슷 more hominum	성행위는 개과 동물과 비슷 more canum
참조: Trats and Heck 1954, Der afrikanische Anthropoide "Bonobo": Eine neue Menschenaffengattung.	

보노보	침팬지
무리 지향적, 평화공존상태 유지 서열 대신에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림 (가노)	개체 독립적 (상대적 비교), 평화공존 상태유지 어려움 서열사회
more mind theory	somhow mind theory
모자관계 장기유지-새끼성장속도 느림(13년까지 양육)	5년 양육
성행위를 사회적 도구로 사용	번식목적 생식
암컷중심사회- 암수 우위는 비슷하지만 먹이분배권은 주로 암컷에 있다. 수컷유소성은 있지만 수컷끼리의 동맹이 없으며, 어린 수컷의 지위는 어미 지위에 종속됨	수컷끼리 동맹 male-philopatric 수컷유소성 수컷은 성장한이후에도 태어난 원래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회적 행동에 증점, 동물사냥 없다	원숭이 사냥
도구사용 없음 -보노보는 흰개미 대신 도구가 필요없는 애벌레를 먹음	도구사용 - 흰개미 사냥을 위해
참조: Takayoshi Kano(가노다카요시) 1992, The last ape:Pygmy Chimpanzee Behavior and Ecology	

소외

어느 숲속에 일개미들이 모여 사는 흙두덩 개미집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개미집 흙두덩 안의 일개미들 사이에는 말 그대로 일만 하는 개미들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개미들이 일정 비율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생태학자가 발표한 것이 있었다. 그 생태학자는 파일럿 실험이라는 일종의 소규모 표본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미군집의 생태적 연대성을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10만 마리의 개미무리가 하나의 개미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7만 마리는 일을 하고 나머지 3만 마리는 놀고 있다. 그래서 일하는 개미 7만 마리와 노는 개미 3만 마리를 분리시켰다. 그러자 이와 동시에 일하는 개미 7만 마리 소군집 안에서 자동적으로 다시 30%의 노는 개미가 형성되고, 노는 개미 3만 마리 소군집 안에서 자동적으로 70%는 다시 일하는 개미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인위적으로 분리시킨 두 군집 사이에서 일어난 비율의 변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과, 그들 사이에서 어떤 개미는 일하고 어떤 개미는 놀게끔 하는 외형의 물리적 신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노는 개미와 일하는 개미로 분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놀랄 만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개미의 개체가 분리되었다는 이성적 전제를 가질 경우, 우리는 이런 개미군집의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된 존재에 대한 이해는, 이 세계는 상호 아무 관계가 없이 고립되고 개별적인 개체적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론(原子論)적 사유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자론적 사유는 서구과학의 방법론적 기초를 만들었으며, 오늘날 산업사회가 낳은 개인주의의 한 단편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서구과학의 덕분으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얻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오고가는 관계의 끈들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문명론적 상황을 철학에서는 '인간소외'라고 표현한다.

인간소외에 대한 위기감은 서구사회에서 먼저 표출되었고, 당연히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안적 사유가 등장하였다. 그중 하나가 세계를 하나의 연결망으로 보는 전일론적 세계관이다. 전일론적 세계관에서는 기존의 분석적인 세계관 대신에 부분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선 전체의 상호연결망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 상호 연결망이라는 것은 분석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시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실체도 아니다. 일종의 관계성이지만 분명히 내재적인 그 무엇이다. 따라서 이런 내재적 상호 연결망의 모호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계적 자아의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관계적 자아란 나와 너 사이의 통합적인 연대와 관계를 통해 전체와 부분이 항상 대화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임을 몸으로 느낄 때 성립한다. 하지만 문제는 불행하게도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나와 너의 공동체적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아

공동체성이 상실되면서 야기된 삶의 소외는 결국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공동체적 소유가 아니라 나만의 소유를 고집할 때 더욱 가속화된다.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심각한 존재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집에서 요리할 때 가끔 양파를 다듬게 된다. 우선 겉껍질을 벗기고 칼질을 하려는데 양파 속의 맨 겉껍질이 물러 터져서 다시 한 겹을 더 벗겨낸다. 그런데 그 다음 겹도 물러서 다시 벗겨냈는데도 또 물러 터져 다시 한 겹을 더 벗겨낸다. 이렇게 자꾸 벗겨내니 막상 먹을 양파가 없어서 버리고 만다. 양파는 내용물이 겹층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 내용이고 어디까지 껍질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양파는 사과처럼 껍질과 내용물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먼 옛날 신석기 말기부터인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인간에게서 언어와 삶이 유리되면서 우리는 존재와 인식과 행위를 나누어 생각하는 버릇이 생겨났다. 존재를 지칭하는 주어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만 인식과 행위를 기술하는 동사를 그 주어에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얽매어 있다. 존재는 고정된 어떤 틀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고정된 존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인식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세계를 분화시키는 사유의 출발이 된다. 그리고 이런 이분화된 사유는 대상과 나를 구분하여, 나를 중심으로 대상을 보려는 자아 중심적인 언어행위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사유는 결국 양파를 겹겹이 벗기다 보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는 원숭이의 알팍한 재주에 비유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아와 대상의 구분은 인간에게서 소유의 영원한 욕심을 날게 하는 사유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들에게 소유의 의미는 욕망의 인식이나 그것을 얻으려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행위가 같이 녹아 있는 존재 그 자체이다. 어려운 말이지는 하지만, 아메바의 포식작용을 예로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메바는

먹이를 포식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 일부를 뺀어 먹이에 부착시킨 후, 몸체를 끌어당겨 그 먹이를 감싸는 행위를 한다. 그렇게 뺀어 내리는 자신의 몸 일부를 우리는 허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허족은 몸체와 따로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몸일 따름이다. 이렇듯 아메바의 몸이 아메바의 존재라면, 행위를 담당하는 허족도 아메바의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아메바에게서 존재와 행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허족의 뺀침은 아메바에게 있어서 행위이듯이 동시에 그 행위는 먹이를 포식하려는 인식작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메바에게서 인식과 행위는 같은 것이다. 요컨대 아메바에게서 존재와 인식 그리고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현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의 진화과정에서 존재와 인식과 행위의 일체가 깨어지고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명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간의 인식과 행위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었다. 문명은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물질의 풍요로움은 끝없는 소유의 유산이었다. 그래서 나의 소유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나의 소유는 필연적으로 너의 결핍을 동반하게 마련이었다. 소유의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결핍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강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문명사회의 지배논리로 되었다.

인간 소유욕구의 특징은 그 욕구가 충족될지라도 여전히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존재와 인식과 행위가 통합된 동물의 소유는 존재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소유의 욕구도 그치고 만다. 이 점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특징이다. 동물은 존재의 소유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소유의 행위도 그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소유를 지향한다. 존재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유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자.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땅의 사자나 혹은 물의 상어도 배가 채워지면 먹이사냥을 그친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오로지 소유를 위해서 계속 소유욕망을 실현코자 한다.

인간의 소유욕망은 더 이상 개체의 존속과 종의 증식을 위한 인식적 도구가 아니라, 문명사회와 함께 주어진 인간의 가장 큰 존재특징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소유욕이 오히려 인간상실과 집단절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환경위기, 인간소외, 자원고갈, 국제분쟁 등에서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뺨내고 남 업신여기는 등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간사의 분화된 존재는 모두 소유의 질곡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쯤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

관계

관계론적 자아의 모습이 상실되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자조적으로 묻는 소외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기껏해야 나는 내 직장의 총무부 대리이고 동네 조기축구회의 총무이며, 고등학교 동창회 간사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등등의 역할의 집합으로서 나를 규정하고 말기 십상이다. 이런 자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집착의 자아를 낳을 뿐이다. 이런 자아는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양파와 같은 자아이기도 하다. 역할의 집합으로서의 자아는 결국 기계 부속품들의 집합으로서의 자아와 진배없다.

기계를 조립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맞추어 똑같은 부속품을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하는, 말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뿐이다. 어떤 노동자가 소변이 마려워도 그 노동자의 생리적 상황에 맞추

어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는다. 단지 컨베이어벨트가 정기적으로 멈추는 휴식시간에 그 노동자는 참고 있던 소변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공장 시스템은 인간을 위해서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셈이 된다.

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이를 일러 철학에서는 ‘소외’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외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인간이 기계로부터 혹은 물질문명으로부터 당하는 문명적 소외를 일컫는 것이다.

1930년대에 나온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다.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이 영화는 톱니바퀴로 상징되는 차가운 기계성에 의해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해 가는 피폐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이 앞서 말한 철학적 소외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삶의 소외는 다시금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만들었던 것이다.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이었건만, 이제는 오히려 과학기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인간이 도구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도구화되어 버린 인간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조차 던질 수 없게 되었고, 결국은 나는 엄청난 과학기술의 권위 앞에서 돌에다 계란 한번 던지는 그런 시늉조차 해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포기해 버리곤 한다. 이를 우리는 인간소외의 극대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극도로 산업화되어 가는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일종의 중독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종교를 가장한 주술과 신비주의 중독이나 정보 유토피아를 가장한 인터넷 게임중독 혹은 소비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중독현상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을 그 어디에도 천착시키지 못하고 표류하는 삶의 방향이기도 하다.

문제는 자신을 상실하고 자연을 상실하고 나아가 미래를 상실하는 중독증이 인간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상업주의가 결정해 준 결과라는 데 있다. 그런데 잉여의 소비재까지 소비하도록 만드는 현대 산업사회의 진짜 문제는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소비주체인 자기 자신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역류구조에 있다.

아마도 현대인에게서 과학기술은 피해갈 수 없는 문명적 통과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머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현대 과학기술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물질적 혜택을 주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만큼 부정적인 측면인 인간성 상실이라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부작용의 근원은 과학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과학이 기술과 산업 그리고 자본과 결합하면서 생긴 인간의 욕망과 경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에도 사람들끼리의 경쟁과 욕망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인류의 종족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는 지나친 이기심의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과학문명사회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열쇠를 과학 그 자체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근원적으로 물질문명이 가져다준 과도한 욕망과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인간적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한 치유는 바로 관계론적 자아를 되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몸을 서로 부딪길 때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의 몸을 내 몸처럼 같이하는 일은,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 속에 들어 있는 아주 일상적인 관계망의 한 부분임을 느끼는 것이다. 나 하나의 존재는 실은 전체의 그물망 속의 한 매듭일 뿐이다. 그 매듭은 삶 속의 작은 만남의 실현을 통해서 거대한 우주적 삶과 만나기도 하고, 전체 그물망을 하나로 반영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호 관계망은 역지로 만들거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에게 있는 것을 찾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선행

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행동으로 이끄는 삶의 준칙이다. 이것이 윤리를 설명하는 언어적 정의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착하다는 것이 무엇이고 행동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삶의 준칙이라는 용어도 혹시 지나친 강령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행동을 자아내기 위하여 그런 착한

행동은 반드시 좋은 행동이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착하다는 것은 좋다는 것과 같은 뜻에서 나왔다. 영어로 말할 때는 다 같이 '굳'good이어서 별 문제없이 보인다. 그런데 우리말로 착한 것과 좋은 것을 말할 때 혹시 그 두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선과 악이라는 대비된 말을 자주 들어 보았을 것이다. 선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어서 마치 저 높은 하늘에 존재하여 절대적인 도덕의 완성체인 듯 느껴지기도 한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선도 역시 '굳'의 명사goodness로 쓰인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다 하나거늘 우리말로 하면 '좋은' '착한' 그리고 '선善한' 것처럼 다른 뜻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그 답을 말하자면 영어에서 '굳'은 사물이나 사람에게 같이 적용하여 사용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착한'이라는 표현은 사람에게만 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이라는 수식어는 사람에게나 사물에게나 다 쓰고 있다. 윤리학은 사람의 행동을 문제삼는 것이지 물건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체계가 아니다.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좋음이란 결국 착함이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잘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인간관계에 능한 사람, 스포츠를 잘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여기서 어떤 학생이 질문할 수 있다. 어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착취되고 나쁜 일에 늘 이용당한다면, 그 착한 사람을 과연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사물에 적용되는 좋음의 기준을 사람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다. 이렇게 좋음을 해석한다면 인간을 위한 윤리학이 아니라 사물을 위한 윤리학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인간을 위한 윤리학을 원한다. 사람을 위한 윤리학에는 좋음이 바람직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소에 생각해 본 착한 사람은 나쁜 일에 자신을 이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자신을 이끌어야한다는 점에서 착하거나 좋거나 선이라는 말은 다 같은 뜻이다.

이기성

1965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생명과학자 프랑수아 자콥(Francois Jacob)이 쓴 『파리, 생쥐 그리고 인간』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강가에서 전갈 한 마리가 강 저편으로 건널 수 있는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이때 개구리가 나타나자, ‘네 등위에 나를 태우고 강을 건너주겠니?’ 전갈이 물었다. ‘내가 미쳤니, 넌 나를 찌르고 말걸.’ 개구리가 답했다. ‘절대 아니야. 널 찢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랬다간 둘 다 빠져죽고 말게. 그리고 보상은 충분히 할게.’ 반신반의하면서도 개구리는 등에 전갈을 태운 뒤 강 저편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물에 들어간 전갈은 개구리를 마구 찢었다. 죽어가면서 개구리는 물었다. ‘그런데 너 왜 이런 짓을 했지?’ 전갈이 대답했다. ‘내 천성 탓이지.’ 그리고 둘은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동물에게서 생물학적 천성에 의한 본능적 행동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생리적 현상이다. 전갈이 개구리를 찢은 행동은 전갈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전갈의 본능적 행위의 결과일 뿐이다. 앞에서 일벌이나 꿀벌의 사회적 행동에 관해 말했지만, 실은 몇몇 동물의 그런 사회적 행동도 개체들 모두가 사회적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 유전자에 실려 있는 행동정보의 양식에 따라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22년 인도 북부 벵골 주의 한 마을에서 두 소녀가 태어난 직후 늑대에 의해 양육되다가 구출된 사건이 일어났다. 구출될 때 소녀들의 나이는 여덟 살과 다섯 살쯤으로 추정되었다. 그때까지 두 소녀는 사람을 만나 적도 없었거니와 인간의 문화적 환경에 노출된 적도 없었다. 작은아이는 얼마 못 가서 죽었고, 큰아이는 10년 정도 더 살았다. 하지만 소녀들은 두 다리로 서지도 못했으며 날고기만 먹었고 늑대처럼 네 발로 다니고 그것도 밤에만 활동했다. 물론 말을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 키플링의 창작동화에 등장하는 정글소년 모글리와는 전혀 다르게, 결국 늑대소녀들은 인간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상의 두 가지 예는 본능과 학습이라는, 동물 혹은 인간의 행동양식에 관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대 분자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생명형태는 유전자 정보에 의존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개별 생명체의 행동양식이 전적으로 유전자에 의존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왠지 우리는 거부감을 갖는다.

특히 인간의 행동양식은 주어진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 학습과 반복적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는 쪽이 많기 때문이다.

언젠가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오리새끼들의 그림을 본 적이 있다. 태어나자마자 맨 처음 본 것이 사람인 오리새끼들은 그 사람을 어미로 기억하게 되는 선천적 혹은 본능적인 인식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갓 태어난 새끼양도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동안 어미와 떼어놓으면 다른 양들과 달리 불안해하거나 비친화적인 이상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어미는 갓 태어난 양들을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핥아주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이상행동 양식이 생긴다고 한다. 즉 어미와 새끼의 시각적·화학적 접촉을 하게 하는 초기의 핥는 행위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행동양식에서 선천적 본능과 후천적 학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인간에게서 본능보다 학습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능 역시 인간의 행동양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인간에게서 본능이란 주로 물질적·신체적 욕망의 원천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대개 본능을 부정적으로 보아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통념 때문에 흔히 본능은 이기주의의 원천이요, 이타주의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만 겨우 훈련될 수 있다는 편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같은 편견은 이기주의는 유전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이타주의는 일종의 사회적 방어기제라는 결론을 유도한다.

이타성

선진유가의 텍스트는 그 첫 장에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씌어져 있다. 불교의 첫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씌어져 있는데, 그러나 다음 장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욕심조차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규범화된 윤리조차도 벗어나는 일, 무심의 이타성만이 진정으로 인류의 진화에 선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능적 이타성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이타성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자연스런 이타성이기 때문에 인간 종의 진화에 훨씬 높은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유가에서 인(仁)을 풀이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곧 우물에 빠질 상황에 놓여 있는 걸음마 아기를 본능적으로 구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지니는 인을 설명한다. 우리는 그런 본능을 선천적이라고 한다.

선악의 대립구도에서 인간의 본능은 항상 악의 원천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본능 그 자체는 윤리적인 것과 무관하다. 단지 본능이 원하는 존재의 욕구가 도덕윤리의 필터를 거쳐야 할 뿐이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본능을 선악구도에서 탈출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이기적 모습만이 아닌 이타주의적 본능을 진화론적 생물학의 범주에서 찾을 수 있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구획을 너무 지나치게 갈라놓을 수 없다. 1) 지나친 이분법적 구획은 다른 쪽의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었다. 집단선택이라고 해서 집단간의 경쟁을 부정하고, 완전한 순수 이타성을 현실적 이기성과 따로 분리하는 이분법의 논리를 이론적 도구로 삼았다. 2) 이타주의 논의는 과학적 근거이기보다는 사람 사는 세상이 좀더 좋아졌으면 하는 정서적 희망의 수단일 뿐이라는 비난 어린 비판이 강했다. 3)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동기는 생물학에서 배제되어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빠져 있었다. 이타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생물계의 자연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되었다.

상황성

이야기 1

중부 독일 기센이라는 작은 도시 외곽에 유럽에서 가장 큰 미군 군수지원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한국인 부인을 둔 미군이 꽤 많았습니다. 그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은 위험수당 등이 붙어서 미국 내 군인보다 급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국에 주

둔하던 병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둔지 근무만기가 되어도 본국보다는 다른 외국 주둔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근무하던 미군들 중에서 이태원이나 오산 등지에서 갖은 행패에 불법자행과 오만불손하던 미군이 한국에서 독일로 전출 가는 경우, 독일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얌전하고 순한 양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순한 양처럼 굴던 독일 주재 미군이 한국으로 전근오면 오는 순간 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자신들이 개판을 쳐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미군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 미군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소율은 5%도 안 됩니다. 독일은 55% 가 넘으며 이웃 일본도 35%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내용적으로 미국에 종속적입니다. 한술 더 떠서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미리 알아서 긴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해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겠죠.

이야기2

이타성

이타성 행위는 (i)겉으로 보이는 이타성과 (ii)헌신성 그 자체의 이타성으로 구분된다. 겉으로 보이는 이타성 행위는 결국 이기적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우회적 행동일 뿐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타주의의 입장을 대표하는 기셀린은 이타적 행위를 (i)후일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행위이며 (ii)이런 행위도 보이지 않는 교환가치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이타적 행위는 경제학적 교환의 행동유형이다.

교환가치가 아닌 순수 희생적 이타성이 있다. 프랭크의 헌신성 모델을 들 수 있다. 프랭크의 헌신성 모델은 이타적 행위를 '겉으로 보이는' 행동 외에 '헌신성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헌신성 모델은 동기중심의 도덕적 이타주의와 결과중심의 진화론적 이타주의를 연결시키는 해석이다. (i)누가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행위자는 자율적으로 이타적 행위를 하기도 하고 혹은 (ii)이타성 행위를 해야겠다는 행위자 자신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타적 행위가 발현되는 그런 이타주의가 바로 프랭크의 헌신적 이타주의 모델이다.(Frank 1988)

이기주의나 겉보기 이타주의에서는 철저하게 합리적 근거에 의해 행동이 유발된다. 계약관계나 교환가치의 인식은 합리주의 경제학적 사유구조의 기초이다. 이기주의와 겉보기 이타주의는 경제학적 행동이론에 해당한다. 반면에 헌신적 이타주의에서 이타적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감성적 판단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 프랭크의 논증이다. 동기 수준의 이기주의 혹은 일차적 반응으로서 이기주의는 합리성 판단이 결핍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듯이, 헌신적 이타주의도 감성적 판단이 우세할 경우 발현될 수 있다.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로지 눈 앞 이익에 매달려 하는 행동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함을 진화론적으로 얻어진 본능에 의해 알고 있다. 그래서 사자나 침팬지나 먹이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만 독식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히 나누어 줄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본능적 계산을 진화론적 합리주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화론적 합리주의에서 벗어나는 동물들의 행동유형은 많다. 인간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 혈연을 강화하는 겉보기 이타 행위, 상호부조를 기대하는 겉보기 이타 행위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행동유형이 있다. 극단적 이기주의의 양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기대하는 계산이나 합리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무작정 이루어지는 이타성 행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자. 2007년 9월 에스비에스 방송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 0.3초의 기적”(638회)에서 방영한대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한 사람의 일, ‘강도야’라는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달려가 강도를 잡고 그 과정에서 스무 바늘 이상 꿰멘 사람의 일, 서해대교 29층 충돌사고시 오른팔 부상을 입으면서도 5명을 구한 사람의 이야기, 이수현씨가 사망한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또 다시 일본 여성을 구출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등에서, 우리는 어떨 곁에 해낸 헌신적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합리적 판단이나 보상을 바라는 계산적 행동과 무관하다. 이러한 이타성 행위

유형은 동기중심의 이타주의도 아니며 합리주의 행동이론에도 속하지 않는다. 도덕적 합리주의는 헌신적 이타주의를 설명하지 못할뿐더러 혈연과 상호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이기주의도 설명하지 못한다. 도덕적 합리주의로 설명가능한 행동유형을 경제학적 행동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도덕적 합리주의로 설명불가능한 행동유형은 반경제학적 행동유형에 해당한다.

로컬리티

남부유럽에서 3만 년 전 새뼈로 만든 4구 피리가 발굴되었다. 그 피리를 불었던 선조의 감성은 현대인의 음악 감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4년 발굴된 쇼베 동굴의 3만6천 년 전 고대인 벽화는 오늘의 예술과 종교의 감성 그대로이다. 아프리카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 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남녀가 아무데서나 벌거벗고 섹스하는 줄로만 오해한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청소년도 우리와 똑같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애뜻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벌레를 보면 움찔거리고 뱀을 보면 무서워한다.

공통성을 공감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획일성이 아니라 특수성이 요청된다. 사는 환경이 서로 달라 사막이나 밀림, 아니면 온대지역이나 고산지대에 따라 문화가 다양해졌다. 진화인류학으로 볼 때 그런 문화적 다양성은 인류의 특수화의 한 대표적인 양상이다. 수많은 방식으로 특수화된 몸과 마음들은 서로에게 우위를 점하지 않으며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한다. 그렇게 지역마다 특수화된 문화를 우리는 로컬리티라고 부른다. 로컬리티의 특수성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인류는 더 발전하며 퇴행하지 않는다. 거꾸로 특수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면 민족이나 국가로 경계지워진 사회집단은 퇴보하거나 끝내는 절멸한다.

세상을 지수화풍으로 보거나 물로 보거나 혹은 사랑으로 본 고대그리스의 다양하고 특수한 자연철학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플라톤의 이데아 보편개념은 나올 수가 없었다. 인간지식의 특수성을 차단했던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근대 과학혁명도 불가능했었다. 주자학을 해석하는 조선지식인의 다양한 논쟁이 없었다면 조선 성리학은 없었을 것이다. 방언은 주변언어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낳은 특수화 과정의 소산물이다. 설악산의 산양의 존재는 동물원의 한 표본이 아니라 설악산 생태계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대신하는 절대적인 지표인 것이다. 캄브리아기 이후 5억년 동안 존재했던 생물종 중에서 99%는 절멸되었고, 현재 존재하는 생물종은 겨우 1% 밖에 안 된다. 그 절멸의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생물종 다양성 구조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생물종이 아무리 번성해도 오로지 그것만 번성하면 결국 모든 것이 절멸한다. 인류사회는 더더욱 그렇다. 동서고금을 통털어 지나온 5천 년 인류사에서 획일적 시스템을 강요한 종교나 독재권력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인간의 다양한 지식을 단절한 동양의 분서갱유나 서양의 암흑시대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 단절된 획일성에서 겨우 벗어난 마지막 쿠바권력의 심각성을 북한이 공감하지 못하면 북한권력도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국정교과서로의 획일화, 핵발전으로 획일화, 음식과 패션의 획일화, 교육과 입시의 획일화, 민족의 획일화, 아파트로의 획일화 등은 결국 우리 삶을 갉아먹으면서 끝내는 모두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획일성은 개인을 철저하게 소외하며 결국 개인의 생존 자체를 파괴한다. 그래서 로컬리티가 시급하게 요청된다.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특수화의 통로들로 짜여진 지도를 펼치는 일이 바로 로컬리티이다. 그런 지도에서 획일화를 거부하는 로컬리티의 나침판을 읽을 수 있다. 로컬리티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생존의 절규이다.

<강의자료2>

생활자치운동의 문제와 방향
최종덕(상시대, 철학)

1. 자치운동의 의미와 당위성

사상적 전환	서구 자본주의의 인간학적 배경이 되는 이기주의 모델의 한계
	인간 중심주의에 근거한 자연 착취 및 생명의 물질화 현상 극대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른 근대화의 허구



삶의 양식의 변화	산업사회의 부작용으로서 나타난 환경 파괴의 심각성
	무차별 경쟁논리에 침식당한 인간성, 그에 따른 인간 소외 확대
	약육강식의 사회적 양상에 따른 죽임의 논리 확산



역사적 현실	지구 부존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방향 없는 소비주의의 부추김
	WTO로 위장된 세계시장 일원화로 드러난 강대국 중심의 경제제국주의 확장
	빈익빈 부익부의 중앙집중적 권력주의의 대형화 및 가속화



극복의 논리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작고 느리고 낮은 생태적 생활논리의 시대적 요청
	개인의 경쟁보다 공동의 자치가 더 많은 생산성과 더 높은 인간성 더 좋은 관계성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인식 필요
	중앙집중보다는 지역평형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살림의 논리 필요

2. 기존 시민운동의 모습들

조직의 문제	두레 개념의 공동 자산이 아닌 개인 이윤추구를 위한 금융자본의 확장에만 매몰
	사업의 규모에만 의존한 자치정신의 의미와 내용을 상실
	1차 생산자 이익보다는 자본 친화적 유통구조에만 지나치게 매달린 의존성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 부재
	주민의 진정한 공동이익보다는 조직이익을 우선하는 태도
전문성의 문제	실제적 대안이 없이 타성적 직업논리에 의한 방만한 운영
	경직된 일부 실무자들의 관료적 태도
	대중적 호응이 부족하고 단순한 당위성만을 반복하는 구태의연함
사회적 문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개발 부족
	생명운동, 생태운동에 대하여 젊은 세대 유입이 가로막혀진 사회적 구조
	대도시 중심의 신권력 지향주의가 팽배
	생산과 소비의 유통 과정의 지나친 다단계 경로
	생태사회에 대한 미래적 안목 부재

3. 자치운동의 방향과 미래

타성적 운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실천적 대안 제시

◎생명운동을 대중적 문화운동으로 전환

●생명운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문화운동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문화운동의 개념으로 발전- 활동가들의 문화의식 고양

통합적 생명 마스터플랜

-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장기 생명자치계획 마스터 플랜 수립
- 지역의 생태지향적 특성화 프로그램,
자치조합 단체들 간의 공동중장기 계획,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

- 단체 이기주의의 극복을 위한 활동가를 위한
상호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활동교육 기관 설립
- 당위성에만 매달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신선한 아이디어 개발
- 자치/조합단체들에서 참신한 젊은 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 조성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친화프로그램

- 30-40년대생 선배와 50-60년대생 중견 활동가 및
70-80년대생 후배들 사이의 정신적 계승, 이론적 대화,
인간적 친화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 구체적인 자치적 삶과 자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존속하는 내면화된 생활방식의 나눔

지역의 환경문제와 가능한 대안들
최종덕(상지대, 철학)

1. 지역운동의 요청

오늘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공해의 문제를 벗어나 있으며, 거대자본의 병리적 현상들이 가져온 물질 만능주의의 한 단면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오염과 더불어 의식의 오염이 바로 오늘의 환경위기의 원인이라고 보아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이러한 원인진단이 있어야만 올바른 위기극복의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자본화된 사회 속에서 물신주의는 자본의 중앙화와 집중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그리고 생활여건의 중앙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집중화 현상으로 생긴 환경문제를 풀기 위하여, 그러한 집중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지방화의 과제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의 전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한국도 1995년부터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중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환경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은 결국 개개인의 의식구조 안에서 거대한 것 보다는 작은 것을 구현하는 지역화의 정신을 실천적 지표로 삼아야 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명제는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운동없는 환경운동은 정치적 구호이거나 학문적 이론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은 지역현실 속에서 크나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개발논리에 대하여 환경논리가 위축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재정독립을 위하여 세수입 증대를 위한 개발이익을 우선 순위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개발논리가 우선일 때 지역의 환경위기 극복대안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논리의 위험성 때문에 개발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사회적 맥락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단지 거대자본을 유입한 지역개발이 과연 진정으로 지역의 재정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개발이익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지역주민과 지역행정가에게 분명하게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을 허용한다 해도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생태공원이나 작은 단위의 휴양림 조성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광수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자체는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의 인식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자발적인 환경의식과 함께 압력단체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환경과 개발의 이중주

'생각은 전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세계적인 흐름의 한 단편이다. 특히 환경위기에 직면한 문명세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환경자치의 개념이 개념이 중시되고 있으며, 거시적 환경계획의 실질적인 실천의 출발점이 바로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당위성이 부각되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지자체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지역의 참여 속에서 비로서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식을 점차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치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재정자립도가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담보를 하는 지역개발을 한 편으로 주창하면서 자연파괴의 모습이 하

나씩 드러나는 이중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치경제의 몇몇 원칙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나만이 잘살고 마는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전한 장기사업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2. 자연보호는 운동이나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립적 자원확보의 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3. 지자체의 행정부서만이 독주하거나 형식적인 의사협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4. 사업시행에서 생길 수 있는 주민, 단체 혹은 기업의 이익과 불이익이 공평하게 평가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인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문화행정이 되어야 한다.
6. 지자체는 주민, 기업, 지방단체, 시민단체 등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7. 건전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난 주민의 의식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자치성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세계 속의 지역

오늘날의 자치문제는 단순히 시민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며 생활환경을 고양하고자 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급한 과제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역환경파괴와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지역위기의 핵심이다. 이러한 지역환경-생태파괴 현상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앞에서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현상들은 지역의 당위적 운명이 아니라 지역의 해결과제로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요청된다. 새로운 세계화 시대에서 지역의 환경문제는 결코 지역에 국한될 문제일 수 없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문제로서 환경문제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지역과 세계 사이의 상관문제로 발전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최종덕 상지대 교수 과학철학 전공

저서: <비판적 생명철학> <승려와 원숭이>, <생물철학>,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과학철학의 역사>, <함께 하는 환경철학>, <이분법을 넘어서>, <시앵티아>, <인문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찰스다윈> 외

관련자료는 필자의 홈페이지

<철학의눈> <http://eyeofphilosophy.net>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